



하림의 미국 시장 진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림그룹, 글로벌 닭고기 시장 진입...

미국 닭고기 가공업체 Allen Family Foods사 인수

편집부

국내 최대의 축산전문기업인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미국내 19위 닭고기 업체를 인수해 닭고기 산업의 본고장에 진출하게 됐다.

하림그룹은 지난 7월 29일 오전(현지시간 28일) 미 동북부 델라웨어(Delaware)주 윌밍턴(Wilmington)시 소재 파산법원의 청문회에서 알렌패밀리푸즈(Allen Family Foods)사의 자산 입찰 결과를 최종 승인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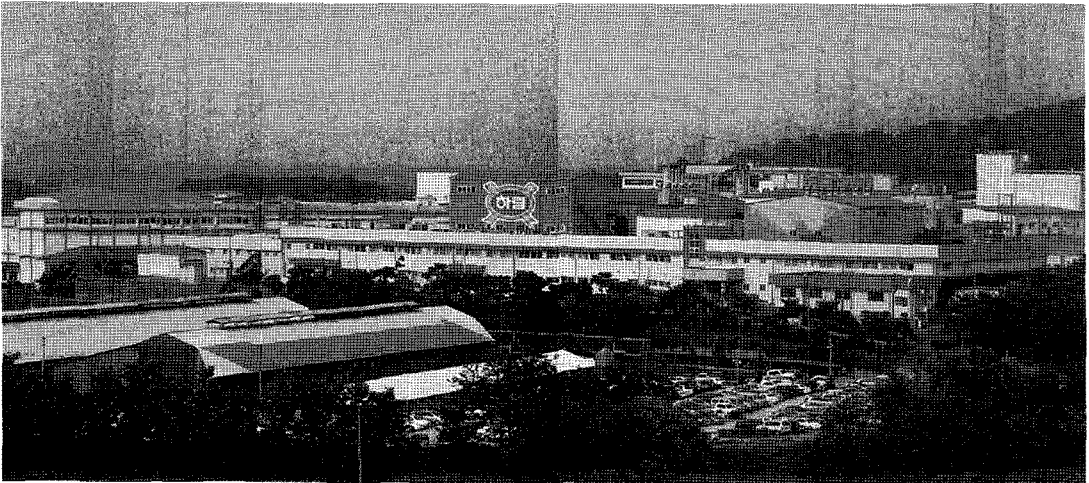
하림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오전(현지시간 26일) 현지에서 열린 이 회사의 자산 경매입찰에 참여, 주요 닭고기 생산시설 및 자산을 일괄 인수하는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바 있다.

하림그룹은 알렌사의 인수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경영에 나설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축산식품기업이 미 본토에서 벌이는 첫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하림그룹은 인수 경영을 위한 투자액을 최대 1억2천만달러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식품기업의 미국 투자액으로는 사상 최고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하림그룹의 미국 닭고기 산업 진출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단백질 식품(육류)에 대한 해외식량기지 확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하림그룹은 미국 현지에 '하림 USA(Harim USA INC.)'를 설립했으며,



(주)하림 본사 전경

하림USA가 알렌의 자산 인수 및 경영을 맡게 된다. 이번 경매입찰을 통한 1차 자산인수에만 4,8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1차 인수작업으로 알렌사의 본사건물, 부화장 2개, 도계가공공장 2개, 사료공장 2개, 렌더링공장 1개, 사육농장 400여만평을 확보한데 이어 실사를 거쳐 재고자산을 추가 인수하고 설비개선 등에 추가 투자하여 직접 경영하게 된다.

미 동부 Delaware주 Seaford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렌사는 1919년 부화업으로 출발해 92년의 역사를 가진 닭고기 계열화 업체로 2010년말 현재 미국내 업계 순위 19위(도계능력 연간 1억수, 대형닭·도계육 생산능력 연간 22만톤)였다. 지난해 약 4억불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미국 경제의 불황과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 6월 현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하림그룹은 지난달 말 인수팀을 파견하여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실질적인 현지경영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림그룹은 알렌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향후 3년내 연매출 10억불 규모의 회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는 구조적인 식량부족 지역으로 식량자원이 남아도는 남북 아메리카, 즉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식품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잠재력과 매력이크다”며, 미국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닭고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본토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고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Agri-

business가 세계에서든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육계부문 삼장통합경영으로 유명한 하림 그룹은 닭고기 뿐 아니라 양돈 및 브랜드 돈육, 한우고급육 유통, 사료, 농수산물 전문 홈쇼핑, 동물약품 등 단백질 식품 전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글로벌 생산성 1위’라는 그룹 비전을 선포하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사료, 곡물유통 등 10개의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경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하림그룹의 이번 인수과정에는 농수축산 식품산업의 융복합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문회사인 JKL 파트너스(사장 이성철)가 참여했다.

그렇다면, 하림그룹의 이번 미국 닭고기 시장 진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본고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의 의미와 앞으로 하림그룹의 글로벌화 전략, 알렌패밀리폭스 경영정상화 및 발전 구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림그룹의 미국 닭고기 사업 진출의 의미

1. 농식품기업의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서막

하림의 이번 미국 알렌사 인수는 닭고기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 닭고기 산업의 심장부인 미 본토에 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축산기업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영에 나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FTA 등 시장 개방 속에서 방어에만 급급하던 농어업 분야가 해외시장으로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하림그룹이 미국 식품산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글로벌 농식품비즈니스의 본류에 합류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특히 농업분야에서 세계 최대이며 최강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수준높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심장부에서 얻게 되는 비즈니스 경험은 현지 경영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경쟁력이자 자산이다.

이를 통해 하림그룹의 글로벌 경영 능력을 단시간내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 시장을 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지고 미국 농식품 시장에서 교류되는 국제적인 정보와 네트워크 등이 경영의 깊이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하림의 글로벌 경영 경험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어 취약한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글로벌 경쟁을 갖지 못해 매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키우고 있는 농식품분야에



서도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을 지도 주목거리다.

우리나라의 애그리 비즈니스(Agi-business) 분야도 글로벌 소싱, 글로벌 트레이딩을 통해 글로벌 경영에서 성공한다면 농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효자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림의 미국 진출은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농축산업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내 농식품기업들에 새로운 자극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다.

2. 국내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 향상 기여

미국은 1950년대부터 육계산업에 통합경영(Integration) 시스템을 도입한 닭고기 산업의 본고장이다. Tyson, Pilgrim's Pride 등 2대 메이저가 닭고기 업계를 이끌고 있으며 38개 계열화 사업체가 연간 1천7백만 톤 가량의 닭고기를 생산, 미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값싸고 풍부한 사료원료(옥수수, 대두박)와 지속적인 R&D, 규모화, 전문화된 사육농장 등 생산기반이 잘 갖춰진 미국의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사육부문의 생산성은 국내 업계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사육비는 우리나라의 50%,

닭고기 생산원가는 우리나라의 60% 수준이다.

또한 닭고기 부문 국내 최고기업인 하림이 미국에 사업장을 갖게 됨으로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현지의 사육부문 경쟁력을 국내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렌사의 우수한 사양관리 기술과 사료원료 조달경험, 글로벌 영업 등은 하림의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관리 능력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림은 향후 한국과 미국 사업장의 인력 교환근무 등을 통해 양 사업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교류시킴으로써 양 사업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 해외 식량자원기지의 확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사료곡물 포함)은 26.7%(2010년)다. 특히 단백질식품(육류)을 생산하는 사료곡물은 거의 100% 외국에 의존한다. 지난해 국내 육류 자급률은 평균 72%(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 자급률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됨)였으나 육류를 생산하는 사료원료가 전량 수입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백질 식량의 실질적인 해외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의 여건상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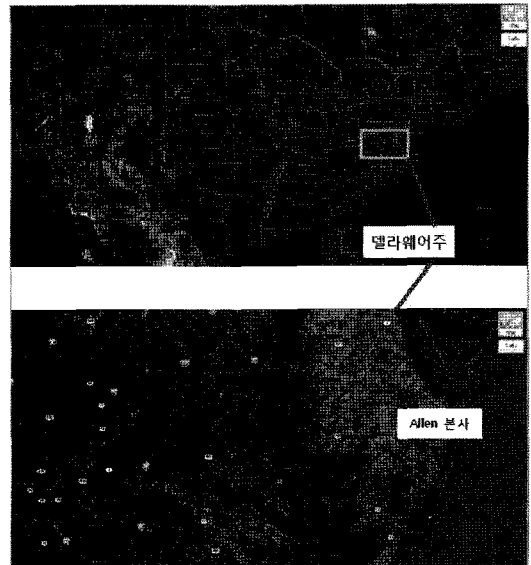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식품기업들이 식량생산 기지에 진출하여 생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에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벌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72kg이다. 197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37kg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단백질 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단백질 식량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수화물(곡물)식량 뿐 아니라 단백질(육류)식량의 안정적 확보 역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료곡물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해외식량자원기지를 확보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림의 미국 진출은 해외식량자원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림그룹의 글로벌화 전략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인구증가, 경제성장, 경작면적 부족 등으로 구조적인 식량부족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북미 지역이다. 향후 아시아 지역의 남북미에 대한 식량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



Allen Family Foods 위치

려할 때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농식품 비즈니스는 글로벌 경영의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그룹의 사업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글로벌화시켜 향후 글로벌 매출과 국내 매출의 비중을 6:4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 방어에 급급한 우리나라의 농식품기업들의 상황으로 볼 때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중일 3국의 경제 공동체화,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적인 식량 부족 등을 전망할 때 하림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백질 식품의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 국가들이 집중된 아시아 지역의 단백질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림은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통해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렌사 경영정상화 및 발전 구상

하림그룹은 알렌사가 사육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 가공부문은 보통 수준, 영업면에서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경영개선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알렌의 본사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델라웨어주는 미국 전체인구의 25%가 살고 있는 미 동북부 지역으로 내국시장 확대의 가능성도 크다.

하림그룹은 현지 법인(Harim USA)을 통해 현지화 경영을 할 계획이다. 가급적 현재

의 고용을 승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현지 협력 업체와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가공부문에서 보다 섬세한 공정을 통해 현지인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 매출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까다로운 국내 사육농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얻은 계열화 사업의 경험도 미국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하림그룹은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내에서 연간 생산량을 30만톤까지 늘림으로써, 국내에서 20만톤 등 총 50만톤의 닭고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국의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닭고기 공급에 기여할 계획이다. 

***알렌(Allen Family Foods, Inc.)사는?

1919년 미국 델라웨어 시포드 인근 작은 마을에서 부화장 사업(주당 6,000마리 부화)으로 시작, 닭고기 인테그레이션(계열화) 업체로 성장한 회사다. 9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회사는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온 미국 닭고기 산업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고, 미국경제의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으나 사육부문의 생산성은 국내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와 있다.

현재 알렌사 종계농장과 부화장의 생산성은 수정률 97%, 부화율 85% 수준이다.

1971년부터 도계·가공 공장을 운영해왔으며, 전성기에는 500여개 사육농장과 2,500만수의 사육규모를 유지하며, 3개의 가공공장서 연간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 그중 4만5천여톤을 수출하기도 했다.

현재 알렌사는 델라웨어주 시포드시에 위치한 본사와 2개의 부화장, 2개의 사료공장, 2개의 가공공장, 1개의 렌더링 공장, 28곳의 직영농장과 230여개 계약사육농장을 갖고 있으며, 임직원수는 2,200여명이다. 미국내 영업은 미 동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에는 총 22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했으며, 매출액은 약 4억 달러였다.